



도시의 경쟁력은 부동산 가치와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도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8개국 학자들이 모여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2005~2006)'를 공개 발표했다. 75개 지표를 통해 110개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한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 2005~2006'를 살펴 보자. 에디터 김소진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

서울, 도시 경쟁력 세계 27위

세계 각국의 도시 경쟁력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청도(成都)에 모여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1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3회 도시 경쟁력 국제학술회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니펑페 박사와 미국 버넬(Bucknell) 대학의 피터 칼 클라스 교수의 주도로 미국,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한국, 멕시코 외 8개 국가 학자들이 협력해 연구, 완성한 제1부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2005~2006)'를 정식 공개·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전 세계 도시의 경쟁력 상승을 위한 전략 및 대책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과 권의를 내놓았다.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과 저명한 경제학자 진가구이(?佳?), 사회과학원 재정·무역 연구소 원장페이창홍(裴?洪), 미국 버넬 대학의 피터 칼 클라스 교수, 캐나다 정책 관련 연구원 피에르 폴 프로(Paul Proulx), 영국 글래스고(Glasgow) 대학 교수 윌리엄 레버, 한국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성 등 각국의 석학들이 발표회에 참석했다.

최근 발표된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2005~2006)'는 75개 지표를 통해 전 세계 110개 도시의 종합 경쟁력, 인재 경쟁력, 기업 자체 경쟁력, 생활 환경 경쟁력, 상업 환경 경쟁력, 창조혁신 경쟁력, 산업 종합 경쟁력을 각각 구분해서 측량·평가한 것이다.

또한 평가한 지표를 토대로 전 세계 110개 도시의 종합 경쟁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위 안에 드는 도시 중 유럽이 10곳, 미국 8곳, 아시아가 2곳을 차지했으며, 아시아의 도쿄와 홍콩은 몇 년간 급격한 발전을 거듭한 후 이번에 선두 대열에 진입했다.

이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유럽과 미국의 도시가 매우 강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20위 도시, 경쟁력 높은 국가에 속해

도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위 20위의 도시는 모두 세계 유명 도시에 위치해 있다. 예를 들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과 보스턴은 모두 미국 동북부의 도시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시카고는 미국 오대호 지역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등은 유럽 중부 도시에 위치해 있고 도쿄는 일본의 태평양 연안, 홍콩은 중국 저장·삼각주 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심 지역은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국제 도시를 길러내는 요람과 같다.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

순위	도시 / 나라
1	뉴욕 미국
2	더블린 아일랜드
3	런던 영국
4	파리 프랑스
5	프랑크푸르트 독일
6	밀라노 이탈리아
7	브뤼셀 벨기에
8	로스앤젤레스 미국
9	코펜하겐 덴마크
10	바르셀로나 스페인
11	동경 일본
27	서울 한국
69	상해 중국
70	북경 중국
96	부산 한국
102	울산 한국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서울 외에 부산과 울산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각각 96위와 10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울산은 사회환경과 제조업 부문에서 각각 전체 1위를 차지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상위권에 들지 못해 종합 경쟁력에서 크게 밀렸다.

서울과 부산도 사회 환경 부문에서 9위와 6위에 각각 올랐으나 다른 부문에서는 모두 상위 20위 안에 끼지 못했다. 특히 서울은 경제 규모

가 6위에 올라 외형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도시 가운데 서울에 앞선 곳은 없었지만 부산보다 경쟁력이 높은 도시는 상하이(69위), 베이징(70위), 선전(73위), 칭다오(92위) 등 11개 도시에 달했다.

표1에서 도시의 종합 경쟁력을 살펴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가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춘 유럽과 미국의 도시와

표1. 세계 도시 6개 부문 경쟁력 순위

순위	항목	도시 이름
1	인재 자재 경쟁력 상위 20위 도시	산호세, 보스턴, 파리,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런던, 시애틀, 워싱턴, 발트모어, 코펜하겐, 뮌헨, 도쿄, 마드리드, 싱가포르, 헬싱키, 칼링턴, 취리히, 애틀랜타, 덴버
2	기업 자재 경쟁력 상위 20위 도시	도쿄, 뉴욕, 런던, 오사카, 파리, 시카고, 휴스턴, 싱가포르, 홍콩, 산호세, 필라델피아, 달라스, 보스턴, 피츠버그,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서울, 멜버른, 샌프란시스코
3	생활환경 경쟁력 상위 20위 도시	취리히, 제네바, 비엔나,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뮌헨, 코펜하겐, 오슬랜드, 시드니, 암스테르담, 브뤼셀, 베를린, 멜버른, 토론토, 칼링턴, 캔버라, 워니켈, 오타와, 뉘른베르크, 더블린, 몬트리올
4	상업 환경 경쟁력 상위 20위 도시	런던, 뉴욕,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도쿄, 오사카, 멜버른, 암스테르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오슬랜드, 휴스턴, 캔버라, 베를린,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보스턴
5	창조혁신환경 경쟁력 상위 20위 도시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시애틀, 보스턴, 필라델피아, 도쿄, 파리, 시카고, 베를린, 샌프란시스코, 발트모어, 토론토, 휴스턴, 헬싱키, 미니애폴리스, 런던, 몬트리올, 피츠버그, 코펜하겐
6	사회 공공 환경 경쟁력 상위 20위 도시	울산, 시드니, 제네바, 산호세, 두바이, 부산, 오크하머, 미니애폴리스, 서울, 교토, 취리히, 샌프란시스코, 사뫼트, 고궁, 산티아고, 대만, 뮌헨, 라스베이거스, 가와사키, 비엔나

표2. 세계 도시 산업 경쟁력 순위

순위	항목	도시 이름
1	제조업 경쟁력 순위 상위 20위 도시	울산, 가와사키, 프랑크푸르트, 산호세, 밀란, 교토, 비엔나, 뉘른베르크, 디트리히, 글래스고, 리버풀, 워킹턴, 오사카, 뮌헨, 몬트리올, 리옹, 니고야, 멜버른, 주해, 도쿄
2	분배성 서비스업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20개 도시	마드리드,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파리, 베를린, 뮌헨, 제네바, 옴피스, 케이프타운, 리옹, 헬싱키, 홍콩, 고베, 함부르크, 샤토로, 비엔나, 뉘른베르크, 코펜하겐, 밀란, 마이애미
3	소비성 서비스업 경쟁력 상위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라스베이거스, 고궁, 대만, 파리, 홍콩, 마카오, 샌안토니오, 샌다이, 옴피스, 신시내티, 마이애미, 니고야, 샤토로, 교토, 세크라멘토, 밀란, 코펜하겐, 콜럼버스
4	사회성 서비스업 경쟁력 상위 20위	워싱턴, 제네바, 피츠버그, 발트모어, 캔버라, 생 루이스, 보스턴, 필라델피아, 취리히, 브뤼셀, 녹스빌,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뉴욕, 암스테르담, 세크라멘토, 클리블랜드, 디트리히, 오스틴, 콜럼버스
5	생산성 서비스업 경쟁력 순위 상위 20위 도시	더블린,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암스테르담, 워싱턴, 사뫼트, 런던, 뉴욕, 덴버, 로스앤젤레스, 산티아고, 뮌헨, 시애틀, 달라스,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피닉스, 브뤼셀, 오스틴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도쿄와 홍콩을 대표로 하는 아시아의 도시가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도시들은 각 항목의 지표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 싱가포르, 홍콩이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바짝 따라잡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도시는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 점수가 비교적 낮고 순위도 뒤쳐져 있다.

대표적인 산업의 자체 경쟁력에 대해서도 5개 항목으로 나눠 비교했다. 5대 항목은 제조업, 분배성 서비스업, 소비성 서비스업, 사회적 서비스업과 생산성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이다.

표2에서 다섯 번째 항목의 산업 경쟁력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미

국의 도시들은 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유럽 연합의 많은 도시들 역시 우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도시들은 훌륭한 산업 구조와 비교적 높은 노동 생산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들의 도시는 각 항목별 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특히 중국 내 도시와 선진 국가들의 도시는 노동 생산성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세계 도시의 경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본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세계 과학기술이 창조해 낸 도시의 경쟁력과 도시의 끊임없는 발전이 전통적인 과거 도시 체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 둘째 일련의 인접 지역 도시들이 신속하게 생겨나면서 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져 세계적인 도시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